

종가의 정신문화 구심체로서 불천위 인물의 삶

-경북 불천위 종가를 중심으로-

김미영*

- I. 불천위 인물과 종가의 형성
- II. 불천위 인물의 삶과 공통적 특징
- III. 유교이념에 기반한 실천적 삶
- IV. 종가의 브랜드가치로서 정신문화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종가의 구심적 존재인 불천위 인물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종가 정신문화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적 활용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북 소재 종가의 불천위 인물 117명 중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64명의 行狀을 대상으로 삼았다. 행장에는 고인의 가계와 유년기와 청장년기의 삶이 주로 서술되어 있고, 노년기의 삶과 고인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 있다.

유년기는 15~20세 무렵에 관례를 행하므로 1~14세 전후로 설정했다. 이때는 부모의 가르침 아래 배움을 익히는 시기로, 64명의 행장에서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jako20@hanmail.net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품성[人性], 부모 섬김, 학문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다. 품성에서는 선량함과 온화함 등과 함께 도량이 넓고 뜻이 견고하고 용맹스러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 섬김에서는 정성을 다해 모시고 그 뜻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학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다른 총명함과 영특함으로 스스로 문장의 뜻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하루종일 단정히 앉아 글 읽기에 매진했다고도 설명한다. 청장년기는 15세 이후의 시기로, 과거시험을 거쳐 관직에 진출하고 혼인을 한 뒤 가족을 구성한다. 행장에는 유년기와 마찬가지로 품성[人性]·부모 섬김·학문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관직생활과 가정생활이 추가된다. 품성에서는 온화함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엄중함으로 절제를 지켰다는 내용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부모 섬김에서는 생전에 정성으로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주자가례에 근거해 상을 거행했으며, 늙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외직을 자청했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학문생활의 경우 침식을 잊은 채 독서에 매진하는가 하면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관직생활에서는 외직에 나가 있을 때는 백성의 삶을 세밀히 보살피고 청렴을 실천했는가 하면, 내직에 있을 때는 임금의 그릇된 정책에 직언을 올리는 등 올곧은 자세를 갖고 있었다. 가정생활에서는 집안을 잘 다스리고 형제간 우애가 두터웠다는 내용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불천위 인물들의 이러한 삶은 유교이념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효행·충절·애민·청렴 등으로 분류된다. 효행의 대표적인 실천행위는 부모 봉양, 병간호, 삼년상으로 나타났다. 충절은 우환의식 곧 나라의安危를 걱정하는 것으로, 실천행위로는 절의와 諫言이 주를 이루고 있다. 愛民은 주로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실천한 행위로, 백성의 삶을 우선하는 자세를 가졌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업무의 공정함을 가지고자 했다. 청렴은 선비정신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상에서는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관직에 있을 때는 물욕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천위 인물의 삶은 후손들의 좌표적 삶이 되어 종가를 대표

하는 정신문화로 자리잡게 된다. 종가의 대표적 문화는 고택문화 · 음식 문화 · 의례문화인데, 이들만으로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지니기 힘들다. 따라서 고택 · 음식 · 의례를 단순히 물질문화나 행위문화로만 인식하지 않고 ‘가치문화’(value culture)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택과 음식, 의례에 깃든 정신(스토리)을 발굴하여 종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공감 ·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때 불천위 인물들의 삶이야말로 보편적 가치의 훌륭한 원천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천위 인물의 삶은 종가의 브랜드가치를 창출 · 상승시켜주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종가, 종가문화, 불천위, 종가음식, 제례, 고택문화, 문중

I. 불천위 인물과 종가의 형성

不遷位 인물은 종가의 형성에서 필수적인 핵심 요소이다. 불천위는 중국 西周의 종법제도에 유래하고 있다. 제후의 차남 이하 아들이 別子가 되어 불천위의 신분을 부여받아 宗[大宗]을 구성하고, 그의 장남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종가가 창출된다. 이와 관련해 『예기』에 “백세가 지나도록 옮기지 않는 宗은 별자의 후손(적장자)이다. 별자의 혈통을 잇는 宗은 백세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宗이며...”¹⁾라는 내용이 있다. 즉 제후의 장남은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별도의 宗을 형성하지 않고, 그 외의 아들은 자신이 중시조[別子]가 되어 대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중시조가 된 별자에게는 천년만년 기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를 百世不遷이라고 한다.

조선에서는 주나라의 종법제도를 도입·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종과는 다른 성격의 派宗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서주의 종법제도는 제후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생득적(선천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파종은 성씨 시조 이래 출중한 인물 곧 顯祖의 출현에 의해 구성되는 획득적(후천적) 친족조직이다.²⁾ 이와 관련해 『예기』에 “별자 신분이 아니어도 최초로 封爵이 된 사람도 시조가 된다”³⁾는 내용이 있고, 『백호통』에서도 “제후의 별자가 아니어도 功이나 德에 의해 대부 자격을 취득한 자는 백세불천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대종을 구성할 수 있다”⁴⁾고 설명한다. 이는 혈통과 상관없이 功勳을 인정받으면 불천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불천위 제도는 조선의 『경국대전』에 “처음으로 功臣이 된 자는 祭享代數가 지나도 불천위로 삼아 별도의 一室을 세워 계속 봉사한다”⁵⁾라는 내용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1) 『禮記』, 「喪服小記」 / 「大傳」.

2) 김미영, 「불천위 제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할」, 『영남학』 3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36쪽.

3) 『禮記』, 「大傳」.

4) 『白虎通』, 「宗族」.

이런 배경에서 조선 초기에는 공신을 중심으로 불천위[國不遷位]가 추대되었다. 조정으로부터 불천위로 지정되면 토지와 노비 등이 내려졌고, 이를 토대로 후손들은 가묘(불천위 사당)를 건립하여 불천위 제례를 봉행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가문의 현조를 중심으로 불천위 추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정공식은 “조선시대 종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현조를 중심으로 가문을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불천위의 특전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백세불천의 宗을 이룬 경우가 많았다. 이는 太宗의 양산을 초래했으며, 이들 불천위를 중심으로 동족촌락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⁶⁾고 지적한 바 있다. 이순구 역시 “국가로부터 대중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시조를 세워 백세불천의 宗으로 삼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국가에서 의도하는 종법과 현실에서 행해진 종법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⁷⁾라고 설명한다. 특히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조선 중기를 거쳐 부계혈통의 친족체계가 정착·확대되면서 가문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가문마다 경쟁적으로 현조를 내세워 불천위로 지정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런 배경에서 鄉不遷位가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다.⁸⁾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불천위로 추대되어 장자 혈통으로 이어지면서 派를 형성하고 친족조직인 문중이 결성된다. 그런 다음 후손들은 그의 불천위 제례에 모여 혈통적 동질감을 확인하면서 결속력을 강화해가는 것이다. 사실 문중 구성원들이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는 경우는 문중 회의와 파조를 위한 불천위 제례인데, 동질감을 가장 고조시키는 것은 제례가 거행되는 行禮 현장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문중회의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파조의

5)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6) 정공식,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42쪽.

7) 이순구,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38쪽.

8) 김미영, 「불천위 추대기준에 대한 제도적·담론적 고찰」,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406~407쪽.

제례에서는 동일시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동질감을 강하게 실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천위 조상은 부계친족집단인 문중의 구심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후손들은 불천위 조상의 계보를 잇고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혈통적 정통성을 수립하면서 자긍심을 드높인다. 특히 종가는 혈통성 뿐만 아니라 불천위 조상의 신주가 안치된 가묘(사당)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문중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종가의 불천위 인물은 학문적·사회적 성취를 달성하고 도덕적 품격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경북지역 종가에서 모시고 있는 불천위 인물의 면면을 살펴볼 때 학문적·사회적 현달에 의해 시호를 내려받거나 서원과 사우에 제향되는가 하면, 청렴을 바탕으로 청백리에 녹훈되고 자기희생적 자세로 백성을 사랑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효행자로 칭송받는 등 높은 도덕적 품격에 의해 지역사회의 師表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⁹⁾

이런 이유로 불천위 인물이 남긴 遺訓을 비롯해 그가 걸어온 삶의 행적은 후손들의 정신적 좌표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종가의 정신문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종가의 불천위 인물들은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그들의 삶의 행적을 行狀으로 정리한 후손과 저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종가의 정신문화는 여타 종가문화(고택문화·음식문화·의례문화)의 활용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의 각 종가에서 모시고 있는 불천위 인물의¹⁰⁾ 행장(묘비명 포함)을 정리·분석한다. 그런데 행장은 고인과 생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이때 참고하는 자료가 家狀(혹은 家牒)이다. 즉 아들이나 후손들이 고인의 행적을 작성하여 행장의 기초자료로

9) 김미영, 「종가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안동학』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262~263쪽.

10) 2021년 현재 嶺宗會에는 117종가가 가입되어 있다. 이 중 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64종가의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행장에는 고인의 인생관과 가치관, 고인에 대한 후손과 저자의 관점과 평가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불천위 인물의 삶과 공통적 특징

여기서는 경북에 위치한 117종가의 불천위 인물 중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된 64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대부분의 자료는 행장이고, 그 외 묘비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불천위 인물의 삶을 통해 당대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전에 활동했던 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표1>에서 불천위 인물 64명의 생몰년을 정리했다.

<표1> 불천위 인물의 생몰년 현황

| 연대 | 1300-1400 | 1400-1500 | 1500-1600 | 1600-1700 | 1700-1800 | 합계 |
|----|-----------|-----------|-----------|-----------|-----------|----|
| 인원 | 4 | 24 | 27 | 8 | 1 | 64 |

<표1>을 보듯이 불천위 인물의 생존 시기는 주로 15~18세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5~17세기의 인물이 51명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1300년대의 인물은 구미 인동 출신의 송은 장안세(?~?)와 경은 이맹전(1392~1480)이다. 장안세는 고려 후기 함흥부사 등을 역임하면서 목민관으로 명성을 떨쳤고, 고려에 절의를 지킨 ‘두문동 72현’ 중 한 명이다. 구미 선산 출신의 이맹전은 조선 초기 생육신의 한 명으로, 세종 때 문과급제를 하여 승문원 정자와 거창현감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선산에 내려가서 일생을 보냈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62인은 조선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표2〉 행장(묘비명) 저자의 생몰년 현황

| 연대 | 1300-1400 | 1400-1500 | 1500-1600 | 1600-1700 | 1700-1800 | 합계 |
|----|-----------|-----------|-----------|-----------|-----------|----|
| 인원 | 0 | 5 | 15 | 11 | 5 | 36 |

이번에는 행장을 작성한 저자들의 생존 시기를 살펴보자. <표2>에서 행장 저자의 생몰년을 정리했는데, 참고로 저자의 경우 여러 사람의 행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36명으로 집계되었다.¹¹⁾ <표2>를 보듯이 저자들 역시 불천위 인물과 마찬가지로 15~18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불천위 인물과 달리 16~18세기의 인물이 26명으로 약 70%를 넘기고 있다. 즉 행장의 주인공과 저자는 대부분 15~18세기에 걸쳐 활동한 동시대 인물이기기는 하지만, 불천위 인물에 비해 저자의 연령대가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행장이나 묘비명 등은 해당 인물이 작고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성하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저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 실제로 행장의 저자 대부분이 고인의 제자를 비롯한 후학들이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어떤 경로에 의해 행장을 작성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행장의 내용에 따르면 대개 고인의 아들과 손자 등과 같이 후손들에 의해 집필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루는 선생의 孤兒인 裁가 손수 그 家傳을 적어 와서 행장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이르기를 “그것은(행장 집필) 大事이다. 마땅히 세상의 덕을 아는 자를 구하여 찾아가야 할 것이니, 두인(저자)같이 식견이 얇고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선생의 성덕과 대업을 행장으로 기술하여 후세에 남기겠는가. 감히 사양하노라” 하였다. 君이 의리를 들어 요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끝내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그 가전에 의거하여 그대로 썼다.¹²⁾

11) 예를 들어 퇴계 이황(1501~1570), 갈암 이현일(1627~1704), 대산 이상정(1711~1781) 등은 4~5명의 행장을 작성했고, 그 외 대부분 2~3인의 행장을 지어준 것으로 나타난다.

12) 홍기는 율김, 『갈암집』, 「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4.

하당 권두인(1643~1719)이 서술한 스승 갈암 이현일(1627~1704)의 행장 집필 계기이다. 이현일의 아들 이재(1657~1730)가 家傳을 갖고 와서 행장을 지어주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권두인은 본인의 얕은 식견으로는 스승의 높은 성덕과 대업에 대해 감히 서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양했지만, 간곡하게 부탁하는 탓에 수락했다고 한다. 행장은 갈암 이현일이 작고하고 나서 3년 뒤인 1707년에 작성되었다.

얼마 전 上庠君 형제가 그 형의 아들인 景濶을 시켜 家牒을 들고 나를 찾아와서 행장을 부탁했다. 나는 궁벽한 마을에 사는 하찮은 사람인데 어찌 훌륭한 행적을 정리하여 먼 후대에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어나 절을 하고 사양했는데 김군 이 숙부들의 부탁을 간곡히 전하기에 깊은 교분을 생각하니 끝내 사양할 수 없었다.¹³⁾

밀암 이재(1680~1746)가 1727년에 지은 팔오헌 김성구(1641~1707)의 행장이다. 김성구의 손자인 단사 김경온(1692~1734)이 家牒을 들고 찾아와서 행장 집필을 부탁했다. 이재의 부친인 갈암 이현일과 김성구는 관직생활을 함께 했으며, 또 이현일이 안동 錦水(지금의 임하면 금소리)에서 잠시 거처할 때 봉화에 살던 김성구가 말을 타고 먼 길을 달려올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하루는 寢郎君이 家狀과 權緝 공이 지은 글을 가져와서 광정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덕을 기록한 글(행장)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 글을 仲兄이신 대산선생께 부탁했습니다만, 글을 짓기 전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고 했다. 또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는 제가 아직 일을 살필 나이가 되지 못해 여기에 기록해 둔 글은 모두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만년의 일은 소략해서 한탄스럽습니다. 게다가 행장 짓는 일을 자꾸 미루다가는 이마저도 사라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께서 義를 행하신 것이 살아서는 세상에 베풀어 없고 돌아가신 뒤에는 후세의 표상이 되지 못할 것이니, 불초한 손자의 죄를 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실 때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13) 김정기 옮김, 『팔오헌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6.

우리 할아버지를 깊이 아실 것 같아 이렇게 감히 청합니다”고 했다. (중략) 이제 능숙하지 못한 글 솜씨로 공의 덕업을 서술하게 되니, 어떻게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여 믿게 하겠는가? 대개 이러한 이유로 사양했으나 끝내 물리치지 못했다. 삼가 가장과 권보 공의 글에 의거하여 엮었고, 내가 보고 들은 것 한두 가지를 덧붙였다.¹⁴⁾

난졸재 이산두(1680~1772)의 행장으로, 1783년에 소산 이광정(1714~1789)이 작성했다. 이산두의 손자가 家狀 등의 자료를 갖고 와서 행장 찬술을 요청했다고 한다. 원래 이광정의 형 대신 이상정(1711~1781)에게 부탁했으나 행장을 짓기 전에 작고한 탓에 이광정은 “안타깝구나! 우리 형님(대신 이상정)은 공을 직접 뵈고 배운 날이 더욱 많았기에 말과 행동 외에도 얻은 것이 많아 잘 형용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 또한 그대 집안의 불행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고인(불천위 인물)과 생전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행장을 저술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들 대부분 학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직간접적인 사승관계였거나 혹은 가르침은 직접 받지 않았으나 평소 학문적으로 존송했던 관계 등이다. 그런가 하면 행장 집필을 의뢰한 사람과 불천위 인물의 관계를 보면 고인의 아들과 손자 등을 비롯한 직계 후손이 41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하는데, 그중 아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손과 처남 등이 7명이고, 나머지는 의뢰자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로 볼 때 행장의 주인공인 불천위 인물과 행장의 저자, 행장의 기초자료인 가장을 작성한 후손들의 생존 시기는 15~18세기에 집중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유학이 보급·정착하던 때이기도 한데, 이런 점에서 행장에는 당대의 유교이념이 투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장은 삶의 행적, 곧 고인의 일대기이다. 그러다 보니 행장의 서술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즉 서두에서는 고인의 家系를 설명하고,

14) 이옥 외 옮김, 『난졸재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2.

이어 유년기를 거쳐 청장년기와 노년기로 이어지는 삶의 행적을 서술한 뒤 고인의 전체적 삶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행장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1. 유년기의 삶

유년기는 관례를 15~20세 사이에 행하는 까닭에 대략 1~14세 전후로 설정했다. 이때는 부모의 가르침 아래 이런저런 배움을 익히고 글을 깨우치는 시기로, 64인의 행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품성[人性], 부모 섬김, 학문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진중하여 장난을 좋아하지 않았다. 5~6세 때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바위 주변에서 노는데, 갑자기 번개가 바위에 떨어졌다. 집안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와 보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공은 혼자 평소처럼 편안히 앉아 있었다. 백부 참봉공이 마음속으로 기특해하며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¹⁵⁾

공은 천성이 대범하고 중후했으며 용모가 준수했다. 어려서부터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고, 자리에 앉고 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을 오직 어른이 명하는 대로 따랐다.¹⁶⁾

팔오현 김성구(1641~1707)와 매산 정중기(1685~1757)의 유년기 품성을 서술한 것으로, 행동이 반듯하고 대범하며 남다른 총명함을 지녔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유년기의 품성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즐겨 쓰는 표현(단어)이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선량·돈후·온후·순후·온유 등과 같이 부드럽고 온화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도량이 넓고 장중하며 뜻이 견고하고 용맹스러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남다른 영특함과 총명함을 지녔다는 것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내용이다.

15) 김정기 옮김, 『팔오현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6.

16) 허벽 옮김, 『대산집』, 「통정대부형조함의매산정공행장」, 한국고전번역원, 2012.

어려서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어 놀거나 행동하는 것이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자라서는 『효경』에 부모를 섬기는 방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른에게 배우기를 청하여 읽고는 잘 실천해나갔다. 이때부터 부모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도리를 갖춰 冬溫夏淸¹⁷⁾과 昏定晨省¹⁸⁾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부모의 생각을 공손히 받들었고 거스르는 일이 있을까 염려했기에 부모가 매우 편안했다.¹⁹⁾

어릴 때부터 성품이 돈후하고 뛰어났다. 열세 살에 어머니 琴氏가 세상을 뒀는데, 哭泣하는 슬픔과 상을 치르는 예절을 어른같이 했고, 또 13년 만에 부친인 兪正公[李穡]이 몰하자 두 형이 지나치게 애통해하다가 숨을 거두고, 공이 혼자서 상례를 지키며 여묘살이를 했다.²⁰⁾

난고 남경훈(1572~1612)과 동암 이영도(1559~1637)의 유년기에 행한 부모 섬김 관련 내용으로, 부모님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편히 모셨으며 부모의 상을 예법대로 치렀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외 사례에서도 평소 정성을 다해 부모를 편안하게 모셨다는 것과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자가례의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겨우 8살에 정경부인을 여의었는데, 호느껴 울고 애통해하며 여막 곁을 떠나지 않았다”²¹⁾ 등과 같이 여묘살이에 관한 내용도 자주 등장한다.

4세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6세에 『대학』을 배우니 몸가짐이 어른과 같았고 아이들과 어울려 遊戲를 일삼지 않았다. 8세에 『맹자』를 읽었는데, ‘伯夷는 눈으로 사악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사악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구절에 이르러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됨을 사모하여 심지어 꿈속에서 만나보기까지 했다.²²⁾

17) ‘동온하정’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도록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18) ‘혼정신성’은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19) 남재주 옮김, 『영산가학』1, 「난고선생유고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9.

20) 『국역 국조인물고』, 「이영도묘갈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21) 전재동 옮김, 『목계집』, 「수암선생유공행장」,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선생은 어려서부터 자질이 특이하고 총명이 뛰어나 7세 때 『십구사략』을 읽고, 8세 때 『소학』을 읽었는데, 절반도 읽기 전에 문리가 터져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이해했으며, 붓을 들어 글을 지으면 모든 글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²³⁾

서애 류성룡(1542~1607)과 우복 정경세(1563~1633)의 행장이다. 류성룡은 네 살에 글을 깨우치고 여섯 살에 『대학』, 여덟 살에는 『맹자』를 읽었고, 학업에 임할 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를 취했다. 정경세 역시 남다른 총명함을 지녔으며 일곱 살에 『십구사략』을 공부하고 여덟 살에 『소학』을 읽었다. 특히 문장 솜씨가 뛰어나 글을 지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유년기에 유교경전이나 역사서를 공부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참고로 불천위 인물 64명이 유년기에 읽은 책은 『효경』·『십구사략』·『소학』·『논어』·『맹자』·『대학』·『주역』 등으로 나타났다. 유년기의 학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다른 총명함과 영특함으로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문장의 뜻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또 문장의 심오한 뜻을 밝히기 위해 침식을 잇은 적이 허다하고, 하루종일 단정히 앉아 글 읽기에 매진했다고도 설명한다.

2. 청장년기의 삶

청장년기는 15세 이후의 시기로, 과거시험을 거쳐 관직에 진출하고 혼인을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시기다. 따라서 이 무렵의 행장에는 유년기와 마찬가지로 품성[人性]·부모 섬김·학문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그 외 관직생활과 가정생활이 추가된다.

공의 자질과 성품은 方正하고 굳세고 마음을 쓰는 것은 온화하고 두터웠다. 남

22) 정선용 옮김, 『우복집』, 「서애 류선생 성룡의 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3.

23) 정선용 옮김, 『우복집』, 「우복 정선생의 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3.

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이 넓었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도 세밀하고 신중했다. 교묘한 속임수와 비뚤어진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고 정직했으며, 자애롭고 성실한 기운이 얼굴에 넘쳐흘렀다.²⁴⁾

장엄으로 자신을 지켰고 조화로움으로 사람을 대했으며 남의 선함을 대하면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기약했고, 허물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따랐으며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²⁵⁾

입암 류중영(1515~1573)과 석문 정영방(1577~1650)의 품성에 관한 내용으로, 올곧은 강직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성년 이후의 품성에서는 유년기와 마찬가지로 넓은 도량과 온화를 바탕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내면의 강직함으로 계약이나 위법에 당당히 맞섰다는 내용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그런데 강직함보다는 온화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평소 온화한 기색이 훈훈하여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도 두터운 정으로써 대했으며, 가정에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여 감히 거슬리는 법이 없었다”²⁶⁾라고, 부드러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편이다.

아버지가 병들어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공이 侍湯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5년 동안 옷을 벗지 않고 화로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병이 조금 나아져서도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춰 문안을 드렸고, 집안일을 처리하고 빈객을 접대하는 일 외에는 잠시라도 부친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²⁷⁾

慈親喪을 당해 상례를 치를 때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으며 문밖에 여막을 지었으나 비바람을 가리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이 벽에 흙이라도 바로도록 했으나

24) 『국역국조인물고』, 「류중영의 묘갈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25) 전재동 옮김, 『목계집』, 「석문정공묘지명」,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26) 권오돈 외 옮김, 『퇴계집』,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행승정대부의정부우찬성겸 판의금부지경연사권공행장」, 민족문화추진회, 1968.

27) 홍기은 옮김, 『갈암집』, 「선고 선교랑행강릉참봉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이공 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4.

선생은 “죄인이 어찌 감히 스스로 편히 지내겠는가”하고 거절했다. 이때는 추운 겨울이어서 얼음이 얼어 옷에 가득했으나 여막을 떠나지 않아 위태로운 병이 생기게 되었다.²⁸⁾

석계 이시명(1590~1674)과 한강 정구(1543~1620)의 부모 섬김에 관한 내용이다.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아버지 곁에서 5년 동안 극진한 병간호를 했고,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묘살이를 하다가 건강을 해쳤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부모 섬김의 경우에는 생전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고 숨을 거두고 나서는 주자가례에 근거하여 상을 치렀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생전 봉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병간호인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外職을 자청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유년기에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성년이 된 청장년기에는 부모를 직접 봉양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주자가례에 근거하여 상례를 치르고 여묘살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거의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심지어 “장사를 치르고 나서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성묘하고 奠을 받드니, 슬픔으로 몸이 훼손되어 목숨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다”²⁹⁾는 내용도 보인다.

평소 글 읽기를 좋아하여 비록 관청에 수직하는 자리에서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고, 성현의 언행이 절실하고 요긴한 대목을 만나면 반드시 아들과 조카들을 불러 펴 보이며 반복하여 가르쳤다. 향시 말하기를 “학문은 반드시 자기를 위한 것이요, 科擧는 지엽적인 것일 뿐이다”고 했다.³⁰⁾

서실에 들어가서는 종일토록 꾀꿉이 앉아 좌우에 있는 서적들을 읽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밤새 연구하느라 잠을 자지 않았다. 깨달음이

28) 성백효 옮김, 『여헌집』, 「황명조선국고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겸세자보양관증자현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 한강정선생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9.

29) 이지락 옮김, 『완정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7.

30) 권오돈 외 옮김, 『퇴계집』,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행승정대부의정부우찬성겸 판의금부지경연사권공행장」, 민족문화추진회, 1968.

있으면 비록 한밤중이라도 촛불을 켜고 글로 써 두었다. 또 자리 곁에 冊子를 두고 자신의 언동을 기록해두고 때때로 꺼내 보면서 공부 과정의 生熟을 시험했다.³¹⁾

충재 권벌(1478~1548)과 경당 장흥효(1564~1633)의 학문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밤을 지새웠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유년기와 마찬가지로 청장년기에 접어들어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변함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강 정구(1543-1620)는 향시에 합격한 뒤 과거시험을 포기하고도 “밤이 깊어야 잠을 자고 닭이 울면 곧바로 일어났으며 종일토록 무릎을 꿇고 앉아 講하고 읽기를 그치지 아니했다”³²⁾고 할 정도로 학문에 매진했다. 이 시기에는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았는데, 경당 장흥효의 경우 “마을 자제들을 가르칠 때는 학도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지만, 각기 그 재질에 따라 가르치되 반드시 揖讓進退를 먼저 일러준 다음에 忠信과 속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었으니, 종일 강론하면서도 피곤함을 잊었다”³³⁾고 했다. 한편 청장년기에는 주로 『주자서절요』·『근사록』·『심경』·『역학계몽』·『성리대전』 등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굶주려 넘어지고 얼어 죽은 시체가 길가에 널렸고 사나운 도적 떼가 험준한 산골마다 무리를 이루고 있었지만 官軍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공은 진흙하여 백성을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고 기락을 이용하여 도적을 잡는 방책을 세워 백성도 소생하고 도적도 사라져 이웃 고을 모두 신뢰하게 되었다.³⁴⁾

거창 현감에 제수되어 공무를 보는 틈틈이 교육에 뜻을 두어 학풍을 진작시켰다. 1년 뒤 부수찬으로 소환되었다. 돌아올 때 집안사람들을 경계시켜 혹여 조금이라도 재물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행 중에 보릿가루 두어 말을 지닌 자가 있

31) 전재동 옮김, 『목재집』, 「경당장공묘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32) 성백효 옮김, 『여헌집』, 「황명조선국고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겸세자보양관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 한강정선생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9.
33) 전재동 옮김, 『목재집』, 「경당장공묘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34) 『국역국조인물고』, 「류운룡의 묘갈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다는 말을 듣자 즉시 꾸짖고 돌려주게 했으니, 지조를 지키고 청빈하게 산 것이 이와 같았다.³⁵⁾

臺閣³⁶⁾에 있을 때 직언과 정론을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1582년에 임금의 잘못된 점과 時政의 그릇됨을 직설적으로 논하는 상소를 올리자 임금이 불쾌히 여겨 牌招³⁷⁾하여 꾸짖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자 임금이 더욱 노했는데, 마침 近臣이 공을 위해 변론하여 임금의 노여움이 풀려 술을 하사하고 마무리되었다.³⁸⁾

검암 류운룡(1539~1601), 팔오현 김성구(1641~1707), 백암 김득(1540~1596)의 관직생활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모두 백성의 삶을 세밀히 보살피고 청렴한 생활을 하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으며, 임금에게 諫言을 드리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관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외직으로 나가서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교육과 풍속을 진작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으며, 검약과 청렴을 실천하여 스스로의 삶을 바로 잡는 일에도 앞장섰다. 특히 흉년으로 인해 기근이 닥쳤을 때는 진휼에 힘을 쏟는 등 백성을 돌보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善政의 핵심은 “縣을 다스리면서 스스로에게는 검약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럽게 했다”³⁹⁾는 데에 있는데, 이는 곧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우선하는 솔선수범의 자세와 다름 없다.

그런가 하면 내직에 근무할 때는 그야말로 “言論과 疏筭로 임금을 인도하여 道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충성이 간절하고 시종 한결같이 털끝

35) 김정기 옮김, 『팔오현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6.

36) 사헌부와 사간원.

37)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당상관만 임금을 수시로 배알했고, 그 외 관원들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야만 배알이 가능했다. 임금이 관원을 궁궐로 불러들일 때 그 관원의 관직과 이름, 도착해야 할 일자 등을 적은 牌(붉은 색칠을 한 등근 나무판)를 승정원에 내리면, 승정원 관리는 패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승정원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해당 신하에게 보냈다.

38) 홍기는 옮김, 『갈암집』, 「백암김공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4.

39) 김윤규 옮김, 『서산선생문집』, 「정재 류선생의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6.

만큼도 흠잡을 점이 없었다”⁴⁰⁾고 평가될 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임금이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면 위험을 무릎쓰고 직언을 올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학봉 김성일(1538~1588)은 선조가 經筵 자리에서 “나를 전대(중국)의 제왕들과 비교할 때 어떤 임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대부분의 신하들은 “堯 임금이나 舜 임금 같습니다”라고 답한 반면에, 그는 “전하께서는 천부적인 자질이 고명하시니 요순처럼 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겨 신하들이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통이 있으십니다.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桀紂⁴¹⁾가 망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⁴²⁾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충언을 수용하지 않는 선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집안을 다스릴 때는 자식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아랫사람은 은혜로 다스리니 집안의 교화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내외 기강이 더욱 엄숙해졌다. 善과 不善에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반드시 忠懇로 대했다.⁴³⁾

백씨 梅塢公과 우애가 독실하여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았다. 중년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지내면서 맛있는 것을 얻으면 형님에게 먼저 보낸 뒤에 자신이 먹었으며, 형님에게 병이 있으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⁴⁴⁾

청장년기는 혼인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집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위의 인용문은 완정 이연영(1568~1639)과 석문 정영방(1577~1650)의 가정생활에 관한 것으로, 집안을 잘 다스리고 형제간 우애가 두터웠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가정생활에서는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막내아우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탓에 자녀들이 모두 어렸는데, 공은 자신의 자

40) 조순희 옮김, 『회재집』, 「행장」, 한국고전번역원, 2015.

41) 중국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으로, 폭정을 행사한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42) 정선용 옮김, 『학봉전집』, 「행장」, 민족문화추진회, 1999.

43) 이지락 옮김, 『완정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7.

44) 전재동 옮김, 『목재집』, 「석문 정공 묘지명」,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너처럼 돌보고 가르치며 혼기를 놓치지 않고 시집과 장가를 보냈다”⁴⁵⁾ 등과 같이 형제의 집안까지 세심히 돌보는가 하면, “형님이 惡瘡을 앓았을 때 의원이 ‘지렁이의 즙이 좋다’고 하자 공이 지렁이 즙을 만들어 먼저 맛을 보고 드렸는데, 과연 효과를 보았다”⁴⁶⁾처럼 형제의 병간호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형제간의 우애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도 나타난다.

아버지께서는 형제들 사이의 우애가 아주 도타웠다. 할아버지께서 미처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마지기 수를 헤아려서 토지를 나누었는데, 매우 공평하여 弟妹들이 모두 기뻐했다. 당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는데, 이때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몇 대가 내려오도록 契券이 없는데도 한 번도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다.⁴⁷⁾

청계 김진(1500~1580)의 행장으로, 아들인 학봉 김성일이 작성했다. 부모님이 미처 재산 상속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만형인 청계 김진이 남매들 간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상속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으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전혀 없었다고도 한다. 그 외 사례에서도 “두 형 및 세 동생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선인의 자산을 모두 형제에게 주었다”⁴⁸⁾ 등과 같이 재산 분배를 할 때 형제들을 우선하는 배려를 행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년기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의 용감하고 엄준한 태도가 어느 정도 누그러져 온화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또 이들 대부분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자연을 벗 삼아 탈세속적 삶을 누리면서 소박한 집을 지어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에 자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아 스스로의 정진은 물론,

45) 김정기 옮김, 『팔오헌선생문집』, 「행장」, 한국국학진흥원, 2016.

46) 『국역국조인물고』, 「김종직의 비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47) 정선용 옮김, 『학봉전집』, 「선고부군행장」, 민족문화추진회, 1999.

48) 김자상 옮김, 『야계선생문집』, 「행장」, 성주문화원, 2014.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고 한다. 가정생활에서는 선조를 받들고 집안을 다스리는 규범을 마련하는가 하면, 선조들의 훌륭한 행적을 기록하고 묘소 위치와 내외손의 계보를 작성하는 등 家統을 수립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Ⅲ. 유교이념에 기반한 실천적 삶

경북지역 불천위 인물 64명의 행장 등을 살펴본 결과 서두에서 고인의 가계家系를 소개하고 이어 유년기·청장년기·노년기의 삶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전체적 삶을 요약·정리하는 이른바 서술방식의 정형화된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런가 하면 행장에 서술된 불천위 인물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 유년기는 품성·부모 섬김·학문생활에 관한 것이고 청장년기는 품성·부모 섬김·학문생활과 더불어 관직생활과 가정생활이 추가되고 있다. 이는 유학자의 삶에서 가장 중시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유교의 실천이념과 맞닿아 있다. 즉 행장에 서술된 불천위 인물의 학문생활은 자기 수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修身] 부모 섬김과 가정생활은 집안을 돌보는 것에 해당하고, [齊家] 관직생활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治國] 이를 토대로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平天下] 이로 볼 때 불천위 인물들의 삶은 유교이념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셈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효행·충절·애민·청렴 등으로 정리된다. 물론 이들 요소는 각각의 의미 층위는 달리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교가 추구하는 이념(정신)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이념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방식(행위)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효행의 대표적인 실천행위는 부모 봉양, 병간호, 삼년상이다. 부모 봉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자리에서 물러나 아버이를 섬길 때는 안색을 온화하게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추울 때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 드리는 일, 맛있는 음식으로 받들었던 일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소학』을 따랐다⁴⁹⁾고 하듯이, 부모의 뜻을 받들어 조금의 거슬림이 없도록 하고 또 의식주 등과 같이 일상의 편안함을 돌봐드리는 일이다. 병간호에서는 병중의 부모가 드실 약과 미음(죽)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가져다드리고, 병석에 누워계신 부모 곁을 밤낮으로 지켰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삼년상의 경우에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상을 거행하고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는 내용이 거의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다.

충절은 憂患意識 곧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천 행위는 절의와 諫言이 주를 이룬다. 절의에는 왕조 교체기나 혼란기에 선왕(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고, 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거했다는 사례 등이 주로 나타난다. 간언은 상소 등을 통해 임금에게 직언하는 것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愛民은 주로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실천한 행위로, “간사한 아전들을 엄하게 제재하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구휼했으며,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고 해로운 일을 제거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며,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검소하게 하고 아랫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후하게 하며, ‘視民如傷’⁵⁰⁾의 네 글자를 항상 가슴에 새겨 두었다”⁵¹⁾고 했듯이, 백성의 삶을 우선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런가 하면 “현풍 현감에 임명되었는데, 흉년이 들고 돌림병까지 유행하여 길거리에 백성들의 시체가 가득했다. 공이 시체 속을 드나들면서 마음을 다해 구제하여 살린 사람이 많았다”⁵²⁾와 같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을 돌보는 경우도 많았다.

49) 전재동 옮김, 『목재집』, 「경당장공묘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50)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돌보는 심정으로 백성을 보살피라는 뜻이다. 그만큼 백성을 아끼고 보살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51) 성백효 옮김, 『여헌집』, 「황명조선국고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겸세자보양관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음금부사 한강정선생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9.
 52) 정선용 옮김, 『우복집』, 「통정대부사간원대사간겸지계교박공승임행장」, 민족문화추진회, 2003.

또 “선생은 외직으로 나와 예천 군수가 되었다. 예천군은 고향(하회)과 가까워 경내 사람들이 대부분 친척이거나 친구였다. 그래서 집무에 제약이 많았으나 선생이 공정하게 처리하니 모두 복종했다. 선생이 떠날 때까지 한 사람도 정무를 간섭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겨울이 되어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온 뒤에 군민들은 선생을 그리워하며 칭송했다”⁵³⁾ 등과 같이, 업무의 공정함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송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렴은 선비정신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상에서는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관직에 있을 때는 물욕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품이 검소하여 집안에 좋은 물건이 없었으며, 현풍·흥해·김해·상주·대구 등 다섯 고을을 다스리면서 돌아올 때는 이삿짐이 초라했으니,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사랑하여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났다”⁵⁴⁾고 하듯이, 대부분의 불천위 인물들은 청렴함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렴한 생활은 가난과 직결된다. ‘安貧樂道’라는 말이 있듯이 퇴계 이황 역시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貧當益可樂]”라는 말을 즐겨 했는데, 『논어』의 ‘가난해도 즐거워하는 것[貧而樂]’에서 유래했다. 자공이 “가난하더라도 아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으니, 공자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가난하더라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더라도 예절을 좋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답했다. 퇴계는 공자의 이 말을 강조하여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꿔놓은 것이다.⁵⁵⁾

53) 전재동 옮김, 『목재집』, 「수암선생유공행장」,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54) 김자상 옮김, 『야계선생문집』, 「행장」, 성주문화원, 2014.

55) 김미영, 「유교이념의 실천도구로서 음식」, 『영남학』7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210~211쪽.

IV. 종가의 브랜드가치로서 정신문화

앞서 살펴봤듯이 불천위 인물의 행장에는 품성 · 부모 섬김 · 학문생활을 비롯해 관직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정형화된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학자의 삶에서 이들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요소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유교의 실천이념이기도 한데, 학문생활은 자기 수양과 관련되어 있고[修身] 부모 섬김과 가정생활은 집안을 돌보는 것이고[齊家] 관직생활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治國]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다.[平天下]

그런가 하면 불천위 인물의 삶을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정리해보면 효행 · 충절 · 애민 · 청렴 등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당대 유학자들은 효행과 충절, 애민과 청렴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후손들은 불천위 조상이 행한 유교이념에 바탕 한 실천적 삶의 행적을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家狀을 작성하여 행장의 저자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천위 인물의 삶은 유교이념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손들 역시 불천위 조상이 남긴 행적을 삶의 좌표로 삼게 되면서 종가를 대표하는 정신문화로 자리잡아 간다. 사실 종가는 오래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즉 종가는 특정 혈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랜 기간 축적 · 전승되어 온 문화적 전통은 종가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이 공유하는 보편적 문화가 된 것이다. 이를 우리는 ‘종가문화’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가의 대표적 문화는 고택문화 · 음식문화 ·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북지역 182종가⁵⁶⁾ 가운데 고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약 49%로 집계된 바 있다.⁵⁷⁾ 특히 조선시대 정치적 부침이 심했던 영남 남인이 밀집해있는 경북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56) 2020년 현재 영중회에 가입한 종가는 117곳이지만,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영중회 종가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57) 김미영, 「종가문화의 전승기반과 변화양상」, 『국학연구』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345~353쪽.

증가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유로 고택을 보유하지 않은 증가가 전체 과반수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택은 증가 외에도 전승되는 경우도 많은 까닭에 고택만으로는 증가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든 실정이다. 음식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내림 음식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집에 거주해야만 온전한 기술 전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종손들은 학업과 생업을 위해 타지로 진출하여 증부들 역시 시어머니로부터 내림음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다. 특히 2017년 현재, 종손과 차종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사례⁵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증가의 내림음식 전승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의례문화 곧 불천위 제례는 규모와 형식(격식)에서 가장 차별화된 증가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제례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례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배경에서 증가의 고택문화, 음식문화, 의례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증가문화에 차별화된 독창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증가에서 전승되고 있는 고택, 음식, 의례를 단순히 물질문화나 행위문화로만 인식하지 않고 ‘가치문화’(value culture)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고택과 음식, 의례에 깃든 정신(스토리)을 발굴하여 증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공감·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때 불천위 인물들의 삶이야말로 보편적 가치의 훌륭한 원천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불천위 인물은 훌륭한 품성을 바탕으로 부모를 극진히 모시면서 형제간 우애를 다지고, 관직에 올라서는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민정신을 구현하고,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로 청렴을 실천해온 것이다. 그리하여 불천위 인물은 해당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도 존송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천위 인물의 삶은 증가의 브랜드가치를 창출·상승시켜주는 핵심요소

58) 김미영, 위의 논문, 2017, 365~366쪽.

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禮記』

『白虎通』

『經國大典』

『국역국조인물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권오돈 외 옮김, 『퇴계집』, 민족문화추진회, 1968.

김윤규 옮김, 『서산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김자상 옮김, 『야계선생문집』, 성주문화원, 2014.

김정기 옮김, 『팔오헌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남재주 옮김, 『영산가학』, 한국국학진흥원, 2019.

성백효 옮김, 『여헌집』, 민족문화추진회, 2009.

이옥 외 옮김, 『난줄재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이지락 옮김, 『완정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7.

전재동 옮김, 『목재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정선용 옮김, 『우복집』, 민족문화추진회, 2003.

정선용 옮김, 『학봉전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조순희 옮김, 『회재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허벽 옮김, 『대산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홍기은 옮김, 『갈암집』, 민족문화추진회, 2004.

김동협, 「이황이 지은 행장을 통해 본 그의 출처관과 인생관」, 『동방한문학』18, 2000.

김미영, 「불천위 제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할」, 『영남학』30,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16.

김미영, 「불천위 추대기준에 대한 제도적·담론적 고찰」,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미영, 「유교이념의 실천도구로서 음식」, 『영남학』7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김미영, 「종가문화의 전승기반과 변화양상」, 『국학연구』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 김미영, 「종가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안동학』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 김미영, 「혈통과 사회적 위세에 따른 종가의 위상」, 『역사민속학』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김한식, 「행장을 통해본 율곡의 사상세계」, 『한국정치학회보』30-4, 한국정치학회, 1997.
-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 서해숙, 「호남지역 불천위제례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조응」, 『남도민속연구』34, 남도민속학회, 2017.
- 이순구,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6), 한국사회사학회, 1995.
- 정공식,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조강희, 「사회변화와 종손의 역할」, 『비교민속학』 15, 비교민속학회, 1998.
-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 2008.

Lives of Bulchunwee Figures as Spiritual Cultural Center of Head Families

-Focused on Bulchunwee Head Families in Gyeongsangbuk-do-

Kim, Mi-young

This study attempted to summarize the details of the spiritual culture of head families and seek present uses by examining the lives of Bulchunwee figures,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head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idered records of 64 persons whose data could be secured out of 117 Bulchunwee figures of head families in Gyeongsangbuk-do. The records mainly describe the lineage, childhood, and adolescent manhood of the deceased, in addition to the elderly life and evaluation of the deceased.

Since the coming-of-age ceremony took place at the ages of 15 to 20 years, childhood was defined as ages between 1 and 14 years. Childhood refers to the time of learning under parental guidance. Common aspects that appeared in the records of the 64 persons included personality, devotion to parents, and learning. For personality, the records stress goodness, gentleness, generosity, strong will, and courage. For devotion to parents, they served and obeyed parents sincerely. For attitude toward learning, the records commonly describe unusual intelligence and sagacity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entences. The records also explain that the figures strove to read while sitting up straight all day long. Adolescent manhood is the time after 15 years old, when the figures entered

government service through state examinations and got married to form a family. Similar to childhood, the records for adolescent manhood include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devotion to parents, and learning. Government service life and family life have been added. For personality, the records commonly show that the figures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people with good nature and practiced moderation with sternness. For devotion to parents, the figures sincerely took care of their parents and went through a funeral process based on the family rites of Zhu Xi. In most cases, they volunteered to work in localities to serve old parents. For learning, the records are mainly about how the figures were absorbed in reading that they almost forgot to eat or sleep and endeavored to foster young scholars. For government service life, they looked after the lives of the people and practiced integrity in localities while maintaining an upright attitude to make forthright advice about wrong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ing when working in the palace. For family life, the records commonly depict how they managed the household properly and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brothers.

When summarized based on the Confucian ideology, such lives of the Bulchunwee figures are classified into filial duty, loyalty, love of people, and integrity. Representative practices of filial duty included support, nursing, and three-year mourning of parents. Loyalty involved worrying about the security of the nation, mainly comprising the practice of fidelity and remonstrance. Love of people was primarily practiced after being assigned to local officers, prioritizing the lives of people and handling duties fairly to prevent causing unfairness. Integrity represented the scholar spirit by managing frugal and simple everyday life and practicing uncorrupted life as government officers.

The lives of the Bulchunwee figures provided coordinates to guide the lives of their descendants, settling down as the leading spiritual

culture of head families. Other typical cultures of head families are the old house culture, food culture, and rite culture, but these cultures fail to differentiate head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old houses, food, and rites into ‘value culture’ instead of simply perceiving them as material culture or behavior culture. Head families can produce universal values to be empathized by and shared with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head family culture by discovering the spirits (stories) indwelling in old houses, food, and rites. The lives of the Bulchunwee figures can be used as excellent sources of such universal values. In this sense, the lives of the Bulchunwee figures can be seen as the core elements that create and raise the brand values of head families.

keywords :

Head family, head family culture, Bulchunwee, head family food, ancestral rites, old house culture, clan

종가의 정신문화 구심체로서 불천위 인물의 삶(김미영)

【부록】 조사 대상 세부 내역

(출생연도 순)

| | 종가 | 불천위 인물 | 참고자료 | 집필자 |
|----|------------|---------------------|------|----------------|
| 1 | 인동장씨 옥산종가 | 松隱 張安世 (여말 선조) | 墓碑銘 | 이상정(1711~1781) |
| 2 | 벽진이씨 경은종가 | 耕隱 李孟專 (1392~1480) | 墓碑銘 | 이상정(1711~1781) |
| 3 | 진주하씨 단계종가 | 丹溪 河緯地 (1412~1456) | 墓碑銘 | 장현광(1554~1637) |
| 4 | 선성김씨 무송현종가 | 撫松軒 金淡 (1416~1464) | 行狀 | 권용(미상) |
| 5 | 진성이씨 노송정종가 | 老松亭 李繼陽 (1424~1488) | 墓碑銘 | 신용개(1463~1519) |
| 6 | 일선김씨 점필재종가 | 佔畢齋 金宗直 (1431~1492) | 墓碑銘 | 홍기달(1438~1504) |
| 7 | 안동김씨 목계종가 | 寶白堂 金係行 (1431~1517) | 墓碑銘 | 이돈우(1807~1884) |
| 8 | 부림홍씨 허백정종가 | 虛白堂 洪貴達 (1438~1504) | 墓碑銘 | 남곤(1471~1527) |
| 9 | 전주류씨 진일재종가 | 眞一齋 柳崇祖 (1452~1513) | 行狀 | 김진동(1727~1800) |
| 10 | 김해김씨 탁영종가 | 潛纒 金朝孫 (1464~1498) | 墓碑銘 | 윤봉조(1680~1761) |
| 11 | 영천이씨 농암종가 | 韓巖 李璣輔 (1467~1555) | 行狀 | 이황(1501~1570) |
| 12 | 풍산김씨 허백당종가 | 虛白堂 金楊震 (1467~1535) | 墓碑銘 | 정사룡(1491~1570) |
| 13 | 진성이씨 송계종가 | 松齋 李堦 (1469~1517) | 墓碑銘 | 최속생(1457~1520) |
| 14 | 안동권씨 충계종가 | 沖齋 權穰 (1478~1548) | 行狀 | 이황(1501~1570) |
| 15 | 성주도씨 행정종가 | 杏亭 都衡 (1480~1547) | 行狀 | 김축(미상) |
| 16 | 여강이씨 회재종가 | 晦齋 李彞迪 (1492~1553) | 行狀 | 김축(1501~1570) |
| 17 | 야성송씨 아계종가 | 仰溪 宋希奎 (1494~1558) | 行狀 | 김취문(1509~1570) |
| 18 | 진성이씨 온계종가 | 溫溪 李瀛 (1496~1550) | 墓碑銘 | 이황(1501~1570) |
| 19 | 의성김씨 청계종가 | 靑溪 金璉 (1500~1580) | 行狀 | 김성일(1538~1593) |
| 20 | 진성이씨 퇴계종가 | 退溪 李滉 (1501~1570) | 言行錄 | 김성일(1538~1593) |
| 21 | 광주노씨 소계종가 | 蘇齋 盧守愼 (1515~1590) | 墓碑銘 | 허목(1595~1682) |
| 22 | 풍산류씨 입암종가 | 立巖 柳仲郢 (1515~1573) | 墓碑銘 | 노수신(1515~1590) |
| 23 | 반남박씨 소고종가 | 嘯臯 朴承任 (1517~1586) | 行狀 | 정경세(1563~1633) |
| 24 | 평해황씨 금계종가 | 錦溪 黃俊良 (1517~1563) | 行狀 | 이황(1501~1570) |
| 25 | 횡성조씨 월천종가 | 月川 趙穆 (1524~1604) | 神道碑銘 | 정온(1569~1641) |
| 26 | 능성구씨 백담종가 | 柏潭 具鳳齡 (1526~1586) | 行狀 | 이준(1560~1635) |
| 27 | 청주정씨 약포종가 | 藥圃 鄭琢 (1526~1605) | 墓誌銘 | 정온(1569~1641) |
| 28 | 봉화김씨 성재종가 | 惺齋 琴爾秀 (1530~1604) | 墓碑銘 | 유근(1549~1627) |
| 29 | 흥해배씨 임연재종가 | 臨淵齋 裴三益 (1534~1588) | 行狀 | 배용길(1556~1609) |
| 30 | 의성김씨 학봉종가 | 鶴峰 金誠一 (1538~1593) | 行狀 | 정구(1543~1620) |
| 31 | 풍산류씨 입암종가 | 謙菴 柳雲龍 (1539~1601) | 墓碑銘 | 이식(1584~1647) |
| 32 | 의성김씨 동강종가 | 東岡 金宇顛 (1540~1603) | 神道碑銘 | 이현일(1627~1704) |
| 33 | 선성김씨 백암종가 | 栢巖 金玊 (1540~1616) | 行狀 | 이현일(1627~1704) |
| 34 | 영천이씨 간계종가 | 良齋 李德弘 (1541~1596) | 墓碑銘 | 이당규(1625~1684) |
| 35 | 풍산류씨 서애종가 | 西厓 柳成龍 (1542~1607) | 行狀 | 정경세(1563~1633) |
| 36 | 청주정씨 한강종가 | 寒岡 鄭述 (1543~1620) | 行狀 | 장현광(1554~1637) |

| | | | | |
|----|------------|---------------------|-----|----------------|
| 37 | 순천박씨 관윤증가 | 汝粹 朴而詢 (1544~1592) | 諡狀 | 이광덕(1690~1748) |
| 38 | 야성정씨 일현증가 | 逸軒 鄭暉 (1548~1592) | 行狀 | 이현일(1627~1704) |
| 39 | 인동장씨 여현증가 | 旻軒 張顯光 (1554~1637) | 墓碑銘 | 이당규(1625~1684) |
| 40 | 의성김씨 운친증가 | 雲川 金涌 (1557~1620) | 行狀 | 조덕린(1658~1737) |
| 41 | 진성이씨 동암증가 | 東巖 李詠道 (1559~1637) | 墓碣銘 | 허목(1595~1682) |
| 42 | 홍양이씨 창석증가 | 蒼石 李竣 (1560~1635) | 行狀 | 채제공(1720~1799) |
| 43 | 영천최씨 죽헌증가 | 竹軒 崔恒慶 (1560~1638) | 墓碣銘 | 이익(1681~1763) |
| 44 | 진양정씨 우복증가 | 愚伏 鄭經世 (1563~1633) | 行狀 | 송준길(1606~1672) |
| 45 | 안동장씨 경당증가 | 敬堂 張興孝 (1564~1633) | 墓誌銘 | 홍여하(1620~1674) |
| 46 | 경주최씨 충의당증가 | 潛窩 崔震立 (1568~1636) | 墓碑銘 | 조경(1586~1669) |
| 47 | 벽진이씨 완석정증가 | 浣石亭 李彥英 (1568~1639) | 行狀 | 이창진(1619~1684) |
| 48 | 광주이씨 석담증가 | 石潭 李濤雨 (1569~1634) | 墓碣銘 | 허목(1595~1682) |
| 49 | 영양남씨 난고증가 | 蘭阜 南慶薰 (1572~1612) | 行狀 | 정규양(1667~1732) |
| 50 | 동래정씨 석문증가 | 石門 鄭榮邦 (1577~1650) | 墓誌銘 | 홍여하(1620~1674) |
| 51 | 풍산류씨 수암증가 | 修巖 柳珍 (1582~1635) | 行狀 | 홍여하(1620~1674) |
| 52 | 재령이씨 석계증가 | 石溪 李時明 (1590~1674) | 行狀 | 이현일(1627~1704) |
| 53 | 남양홍씨 두곡증가 | 杜谷 洪宇定 (1595~1656) | 行狀 | 이상정(1711~1781) |
| 54 | 진주류씨 백졸암증가 | 百拙庵 柳稷 (1602~1662) | 墓誌銘 | 이현일(1627~1704) |
| 55 | 재령이씨 존재증가 | 存齋 李徽逸 (1619~1672) | 行狀 | 이현일(1627~1704) |
| 56 | 재령이씨 갈암증가 | 葛庵 李玄逸 (1627~1704) | 行狀 | 이현일(1627~1704) |
| 57 | 의성김씨 팔오현증가 | 八吾軒 金聲久 (1641~1707) | 行狀 | 이재(1657~1730) |
| 58 | 안동권씨 병곡증가 | 屏谷 權渠 (1672~1749) | 行狀 | 이상정(1711~1781) |
| 59 | 전의이씨 난출재증가 | 懶拙齋 李山斗 (1680~1773) | 行狀 | 이광정(1552~1627) |
| 60 | 진주류씨 용와증가 | 慵窩 柳升鉉 (1680~1746) | 行狀 | 류승현(1680~1746) |
| 61 | 오천정씨 매산증가 | 梅山 鄭重器 (1685~1757) | 行狀 | 이상정(1711~1781) |
| 62 | 진주류씨 삼산증가 | 三山 柳正源 (1702~1761) | 行狀 | 이상정(1711~1781) |
| 63 | 한산이씨 대산증가 | 大山 李象靖 (1711~1781) | 行狀 | 이광정(1552~1627) |
| 64 | 진주류씨 정재증가 | 定齋 柳啟明 (1777~1861) | 行狀 | 김홍락(1827~1899) |